

파업지침 1호: 7.15 생산을 멈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만)는 7월 10일 파업지침 1호를 통해 7월 15일 일제히 일손을 멈춰 생산을 중단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전국의 조합원에게 하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6월말 중앙교섭부터 사업장보충교섭까지 순차적으로 결렬을 선언하고 7월 3일 중노위에 일괄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 6일부터 나흘간 총회를 열어 투표대비 90%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53개 사업장 10만여 조합원이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파업 지침 1호

금속노조 62차 임시대의원대회와 158차 중앙위원회 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업 지침을 공지합니다.

- 아래 -

- 2026년 단체교섭 쟁의권을 확보한 단위조직 전 조합원은 7월 15일(수) 모든 교대근무조 각 4시간(총량 8시간) 이상 파업을 전개한다.
- 2026년 단체교섭 쟁의권 미확보 단위조직은 총회, 교육 시간 활용 등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본 투쟁에 결함한다.
- 전 조합원은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원청교섭 쟁취! 금속노조 1차 파업 대회(지역별)를 진행하고 원청교섭 집중 쟁취와 취지의 민주노총 파업 집회에도 결함한다.

2026년 7월 10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중앙쟁의대책위원장 박상만

충남지부는 32개 지회 6천여명 조합원이 전국단위 산별총파업 대열에 합류합니다. 주간조 중심으로 2,800여명의 조합원들이 천안 아우리로 모여 충남지부 파업투쟁대회를 진행합니다.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충남지부 소속 하청·자회사 지회 조합원들도 이번 총파업을 시작으로 하반기 진짜 사장을 교섭장으로 끌어내는 투쟁에 박차를 가합니다.

산업과 시대의 변화 노동이 주도하자

올해 금속노조 총파업 요구는 정부와 자본을 상대로 한 사회적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장마다 조건과 사정이 달라도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의식은 동일합니다. 산업전환과 구조조정, 해외 물량 이전과 자동화 확대, 신규채용이 중단되고 단체협약이 개악되는 고용불안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높은 제조업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문제, 해외로 일거리가 빠져나가는 위기, AI를 비롯한 산업전환과 기술혁신에 대한 대안, 비정규직 해고금지와 고용보장 등 조합원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자본의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막고 국내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사회적 교섭과 투쟁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산업·노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제조업 노동자를 대표하는 금속노조가 노동·산업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업종, 산업, 제조업 전반에 걸친 요구입니다. 이 제도의 설계는 기업별 교섭과 투쟁 체계로는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업별 교섭을 뛰어넘는 초(超)기업 교섭을 보장하라고 자본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업종과 지역, 산업별로 동질성을 가진 노동자 집단을 묶고, 역시 집단으로 묶인 자본 그리고 정부 기관(지자체)과 직접 교섭을 하자는 것입니다. 충남지부도 지부집단교섭에 참가하는 노사가 충남도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충남도와 노사정 협의구조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청교섭은 대표적인 초기업 교섭의 모델입니다.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든 개정 노조법을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원청 자본에게는 즉각 교섭에 나올 것, 정부에게는 원청 자본을 끌어내 교섭을 개시하는 촉진자 역할을 요구합니다.

현장 임단투+사회적 투쟁=산별총파업

우리의 파업을 파괴하고 산별노조 내부를 갈라치기하는 자본의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본은 금속노조 중앙파업과 현장파업을 애써 분리시키고 산별총파업은 정치파업, 외부파업, 현장과 상관없는 내려쫓기식 파업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은 현장에서 '우리끼리' 대화로 잘 해결해보자며, 산별노조 교섭과 쟁의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합니다.

산별총파업은 6월말 중앙교섭-지부집단교섭-사업장보충교섭의 순차적 결렬을 통해 돌입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에 세 가지 교섭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금속노조 요구와 과제도 현장과 모두 직결되어 있습니다. 산별총파업은 전국-지역-현장의 교섭 모두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껌데기 뿐인 제시안을 겨냥합니다. 산별총파업은 현장임단협 교섭에 힘이 되고 개별 사측도 압박합니다. 금속노조 파업과 사업장 파업이 따로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산별총파업의 힘을 빼려는 저들의 책동을 현장에서 뚫어냅니다.

금속노조 7.15총파업

2026 함께 싸우자

모든 노동자의 고용 보장! 초기업 원청교섭 쟁취!

서울대회 15:00 동화면세점 앞
(서울·인천·한국지엠·기아차지부 참가)

경기 15:00 회성축매지회 앞

경남 15:00 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

경주·구미·포항 13:00 경북본부 결의대회(포항)

광주전남 15:3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구 14:0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충북 14:00 현대모비스충주지회

부산양산 15:00 부산시청 앞

서울 13:00 서울고용노동청 앞, 서울대회

울산 14:00 울산시청 앞

전북 15:00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앞

충남 14:00 천안 아우리

금속노조 파업 조합원들은 7월 15일 한날한시 12곳 지역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올해 금속노조 총파업은 8월과 9월까지 이어집니다. 의례적인 투쟁, 형식적인 파업이 아닌 한 번을 싸워도 제대로, 실제 생산을 멈추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우리의 현장을 지키고, 노동의 권리를 확대시키는 총파업을 사수합니다. 동향&전망